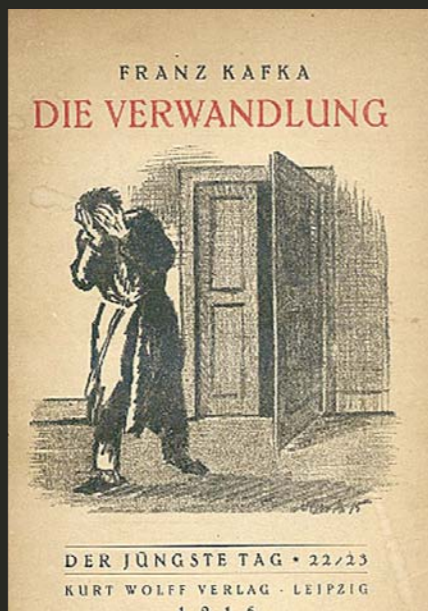


인문지행의 세상읽기 카프카의 '변신' 그리고 가족

# 가족이기에 놓아야 할 '인내의 다리'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표지



카프카가 찾는 자유와 출구는 불가능하.

자연은 정해진 길을 가는 듯하다. 처서 절기를 기점으로 하여 마치 모기의 입을 비틀어놓은 듯 기온의 차이가 난다. '생각'이라는 것을 할 엄두도 나지 않게 몸을 압박한, 한 여름의 맹렬한 더위가 사람의 생각을 정지시켰다가, 어느새 서늘한 기온과 함께 찾아온 아침이다. 지금 생각의 고리를 잇게 하는 계절이다.

### ◆정치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하는 일이라고 둘러대는 말하는 기술밖에 없는 흔한 정치가와 달리 나름 열심히 정치하면서 글쓰기도 좋아하는 한 정치가가 '정치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거리를 내놓았다. 요즘 사람들의 의견을 들로 가르는 예민한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 가족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는 글이다. 정치인은 자기 입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말의 집중포화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어쩌면 살얼음 위에 서 있는 상태임을 인정해야 하는 약점을 갖는다. 그러니 글쓴이의 말처럼 정치를 하려면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수한다는 것은 결국 극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롤러코스터를 항상 경계하는 일과 병행하는 일하기에 가족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알고 관여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대중에 의해서 소환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안 될 것이다. 가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을 생각한다.

물론 완벽하게 흡입을 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구슬을 가질 수 없겠지만 적어도 왜 그것이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일들이 요구하는 길을 더듬어 찾아나갈 수 있다면, 가족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이 다른 풍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필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가족 간의 깊은 간극과 흡입을 만들어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과 태도에 관한 생각을 해 보고자 한다.

### ◆가족이 흉하게 변한 '그레고르'를 이해하지 못한다

가족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 해석을 불러오는 작품으로 카프카의 '변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상에 나온 지 백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변화된 시간이 묻는 질문들에 유익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작품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책은 가족 문제에 관한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어느 날 아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아들이 벌레로 변한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들은 그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방문을 사이로 서로 다른 생활을 시작한다. 결국 아들의 죽음과 파멸을 겪은 후, 남은 가족은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소설은 끝이 난다.

출근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 버린 후,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크한 어머니의 첫 마디는 기차 시간에 늦었으니 가야 할 시간이 지났다는 격정 반 염려반의 경고성 발언이다. "여섯 시 사십오분이다. 가야 하지 않니?" 출근 시간에 늦었으니 어서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전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왜 이 시간이 되어서도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야 한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아들에게 시간을 말하

### 어느 날 아침 벌레가 된 아들 그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가족 단절된 관계가 만들어낸 비극

타인보다 가까운 사이 득 되거나 독이 될 수도

관계 유지하려는 구성원 간의 노력 중요 서로에게 관심 갖고 인내하는 자세도

고 있다. 특히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의 일이다. 매우 놀란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아들을 부르는 것뿐이다. 아들의 입상이나 상황을 알려고 하는 시도가 없는, 자기 놀라움의 표식을 보일 뿐이다.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본 누이동생은 조금 다르다. 오빠에게 무언가 불편한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혹시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면서 관심을 보이는 말을 한다. "오빠, 문 열어 제발." 그러나 끝내 문은 열리지 않는다. 이들 사이에는 예견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 갑작스런 실패에 의한 몰락 등(소설의 경우는 주인공이 벌레로 변한 것인데) - 가족 관계를 이어주는 소통의 끈이 없었던 것이다. 가족 서로가 자신의 어려움을 열어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소통 부재의 가족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은 그레고르가 습관처럼 항상 문을 잠그고 생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은 평소에도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지금처럼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을 인식하고는 아예 문을 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즉 같은 가족이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난처한 변화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들은 가족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된 것이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한다.

### ◆변한 그레고르를 피하는 지배인, 수용하는 가족

자포자기한 그레고르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변해버린 흉측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레고르 혼자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챈 가족은 의사도 부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 가족은 그레고르가 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서 말하고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의사와 열쇠공이 도착하기 전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레고르가 입으로 문을 연 것이다.

에타게 그레고르에게 문을 열라고 권하던 한결같은 사람들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보고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방문에서 나오는 그레고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던 회사의 지배인은 말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선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 그레고르로부터 회피하는 것이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다가 현관에 이르러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난다.

자리를 피하는 지배인과 달리,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부터 달아날 수가 없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는다. 더 이상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린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 벌레로 변한 아들을 가까이서 마주한 어머니는 "사람 살려, 아이고머니, 사람 살려!" 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한 곳을 찾아서 몸을 숨긴다. 가족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아버지도 상황이 요구하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다. 마치 그레고르를 방안으로 다시 밀어 넣으려는 듯 주먹을 쥐고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이어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들을 챙기는 대신 아버지는 도망친 지배인의 모자와 외투를 챙긴다. 그리고 지팡이로 그레고르를 방안으로 밀어 넣는다. 심지어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쓰기도 하려는 듯 무자비하게 지팡이로 몰아붙이며 위협한다. 벌레가 된 아들을 최대한 빠르게 방안에 가두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가정이다. 결국 아버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그렇게 열려고 했던 방문에 밖에서 빗장까지 걸어서 문을 단단히 잠가 버린다.

### ◆가족이라고 통할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족의 소통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소통을 연결하는 당연한 다리는 없다. 서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고 가슴 속에는 내용들이 말을 통해서 그대로 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가족일수록, 더구나 서로 예민한 가족 구성원일수록 상대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문제가 요구하는 시간을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가족은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과 달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더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곧 화해하면 풀릴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이유들로 자신의 감정의 날 것 그대로 거칠게 표현하는 것은 가족에게 주는 아픔의 흔적을 길게, 아주 길게 남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물론 좋은 관계를 위한 정해진 수단이나 공작도 달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도 없다. 서로 각기 다른 사람으로서, 다가 가려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참고 상황을 더욱 분명하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 간에 이미 서로 통하는 다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으로 친밀하게 사는 게, 가족과 더불어 이 다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카프카의 소설에서는 마침내 그레고르의 여동생이 "우리는 저것을 없애버려야만 해요... 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라고 억누른 감정을 폭발하면서 파국으로 향한다. 바로 이 지점이 가족 사이에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가족 사이의 길은 서로 놓아가야 하는 아주 특별한 다리이다. 그 길을 놓은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

박해용 철학박사

### 박해용은

무안 출신으로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해서 연구했다. 현재, 대화 문화의 이론 연구와 실천을 위한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소>를 운영하며,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에서 회원들과 함께 인문학 평생학습을 하고 있다.

